



## 관점의 비교 연습

Today's 비문학

독해 포인트 : 관점의 비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① 재현적 회화란 사물의 외관을 실제 대상과 닮게 묘사하여 보는 이가 그림을 보고 그것이 어떤 대상을 그린 것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그림을 말한다. 음악은 어떨까? 회화가 재현적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음악도 가져야 재현적 음악이 될 수 있다면, 본질적으로 추상적인 모든 음악은 결코 대상을 재현할 수 없다고 해야 하는가?
- ② 흔히 논의되는 회화적 재현의 핵심적 조건은 그림의 지각 경험과 그림에 재현된 대상을 실제로 지각할 때의 경험 사이에 닮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악이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은 음악 작품의 이른바 순수하게 음악적인 부분이 재현 대상에 대한 즉각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데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사과를 재현한 회화에서 재현된 대상인 사과는 작품의 제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림 속에서 인식이 가능한데, 음악의 경우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음악은 재현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바다를 재현했다고 하는 드뷔시의 '바다'의 경우라도, 표제적 제목을 참조하지 않는다면 감상자는 이 곡을 바다의 재현으로 듣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일반화되기 어렵다. 모래 해안의 일부를 극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한 그림은 재현적 회화이지만 그 제목을 모르면 비재현적으로 보이기 십상일 것이다.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의 경우, 제목을 알 때 감상자는 그림에 그려진 선과 칠해진 면을 뉴욕 거리를 내려다 본 평면도로 볼 수 있지만 제목을 모를 때는 추상화로 보게 될 것이다.
- ③ 그러나 이에 대해, 회화적 재현에서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와 같은 사례는 비전형적인 반면 음악의 경우에는 이것이 전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다. 물론 음악에서는 제목에 대한 참조 없이도 명백히 재현으로 지각되는 사례, 예를 들어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의 새소리 같은 경우가 드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음악의 재현 가능성을 부정해야 할 이유가 될까? 작품에서 제목이 담당하는 역할을 고려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않다.
- ④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음악 작품의 가사는 물론 작품의 제목이나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표제까지도 작품의 일부로 본다. ㉠이 입장을 근거로 할 때, 작품의 내용이 제목의 도움 없이도 인식 가능해야만 재현이라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제목이 작품의 일부인 한 예술 작품의 재현성은 제목을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작품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슈베르트의 '물레질하는 그레첸'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단순한 반주 음형은 제목과 더불어 감상될 때 물레의 반복적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들린다.
- ⑤ 음악이 재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작품 이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재현적 그림의 특징 중 하나는 재현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작품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재현적이라 일컬어지는 음악 작품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감상자는 작품이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 음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상자는 '바다'가 바다의 재현으로서 의도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도 이 곡을 이루는 음의 조합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바다'를 음악적으로 이해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⑥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도 제시될 수 있다. 작품의 제목이나 표제가 무시된 채 순수한 음악적 측면만이 고려된다면 작품의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표제적 제목과 주제를 알지 못하는 감상자는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에서 왜 '프랑스 국가'가 갑작스럽게 출현하는지,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의 말미에 왜 '단두대로의 행진'이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실로 이들 작품에서 그러한 요소들의 출현을 설명해 줄 순수하게 음악적인 근거란 없으며, 그것은 오직 음악이 재현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의해서만 해명될 수 있다.

---

**[문제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 ① '바다'는 표제적 제목 없이는 재현으로 볼 수 없다.
- ②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제목과 함께 고려할 때 재현으로 볼 수 있다.
- ③ '전원 교향곡'에서 자연의 소리를 닮은 부분은 제목과 함께 고려해야만 재현으로 볼 수 있다.
- ④ '물레질하는 그레첸'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반주 음형은 제목과 함께 고려할 때 재현으로 볼 수 있다.
- ⑤ '1812년 서곡'에 포함된 '프랑스 국가'는 순수하게 음악적인 관점에서는 그 등장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문제 2] 글쓴이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2)**

- ① 순수한 음악적 측면만으로 재현 대상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악 작품이 흔히 존재한다.
- ② 음악의 재현 가능성을 옹호하려면 회화적 재현을 판단하는 기준을 대신할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③ 제목의 도움 없이는 재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음악과 전형적인 회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이다.
- ④ 음악적 재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음악 작품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감상자가 작품을 충분히 이해하는 경우가 전형적이어야 한다.
- ⑤ 재현에 대한 지각적 경험과 재현 대상에 대한 지각적 경험 사이에 닮음이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악 작품이 존재한다.

[문제 3] <보기>에 대한 ㉠ - ㉢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보 기>

슈만은 멘델스존의 교향곡 '스코틀랜드'를 들으면서 멘델스존의 다른 교향곡 '이탈리아'를 듣고 있다고 착각한 적이 있었다. 이탈리아의 풍경을 떠올리며 '스코틀랜드'를 들었을 슈만은 아마도 듣고 있는 곡의 2악장의 주제에 왜 '파, 솔, 라, 도, 레'의 다섯 음만이 사용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멘델스존의 의도는 스코틀랜드 전통 음악의 5음 음계를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 ① ㉠은 이것을 예술 작품의 일부로서 제목이 갖는 중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② ㉡은 슈만이 자신이 듣고 있는 곡의 재현 대상을 몰랐더라도 곡의 전체적인 조합만큼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 ③ ㉢은 5음 음계가 사용된 이유에 대한 정보가 그 곡이 교향곡으로서 지니는 순수한 음악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④ ㉠은 슈만이 자신이 듣고 있는 곡의 제목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 음악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할 것이다.
- ⑤ ㉡은 이탈리아 풍경과는 이질적인 5음 음계로 인해 슈만이 자신이 듣고 있는 곡의 음악적 구조 파악에 실패했다고 할 것이다.

Today's 비문학 해설

함께 분석해 볼 지문은 2014년 LEET 예술지문이다. 수준은 별 두 개 반 정도. 수능에서 출제되는 지문과 난이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항상 주의할 것은 쉬운 놈에게 맞으면 데미지가 더 크다는 것이다. 쉬워 보일수록 함정을 의심하고 원칙적으로 조심스럽게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기 바란다. 한 문제가 일년을 결정한다.

우선 첫 문단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자.

원칙은 잊지 말기 바란다.

첫째, '다구리'의 원리에 따라 소화제 별로 나누어 가면서 세밀하게 확인한다.

둘째, 확인 과정에서 '개념', '비교, 대조', '조건, 인과, 변수', '과정', '인용(사람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확인한다.

이 두 가지면 사실 비문학 독해는 끝이라도 봐도 된다.

이 전에도 밝힌 바와 같이 약장사들이 떠들어 대는 '무슨무슨 독해 원리'같은 소리는 믿고 싶지도 않고 효용도 없다고 생각한다. 많이 알면 알수록 시험장에서 머리만 복잡하다. 태권도 2단, 검도 2단, 합기도 2단, 우수 2단 보다는 태권도 9단이 훨씬 싸움을 잘 한다고 믿는다. 비약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하고자 하는 말은 정말 목숨걸고 싸워야 할 때는 이것저것 잡스럽게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의 단순한 원리를 극한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된다. 잊지 말자! 내 말이 의심스럽다면 앞으로 계속 '○○ 독해 원리' 같은 약장사가 파는 약을 먹기 바란다. 건강에 해롭다.

㉠ 재현적 회화란 사물의 외관을 실제 대상과 닮게 묘사하여 보는 이가 그림을 보고 그것이 어떤 대상을 그린 것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그림을 말한다. 음악은 어떻게? 회화가 재현적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음악도 가져야 재현적 음악이 될 수 있다면, 본질적으로 추상적인 모든 음악은 결코 대상을 재현할 수 없다고 해야 하는가?

㉠ 문단은 예상 외로 간단하다.

우선 '재현적 회화'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재현적 회화 = 실제 대상과 닮게 묘사 = 감상자가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그림

우리가 다 알만한 이런 설명을 굳이 '정의'의 방식으로 제시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다음 문장에 설명되어 있다. 회화는 '재현적 회화'가 가능한데 과연 '음악' 재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굳이 친절하게 정리해 주자면 "음악의 재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 글 전체의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잔소리 같아서 더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잔소리꾼이라는 오명을 들을 각오를 하고 한 마디 덧붙이겠다. 첫 문단은 도대체 왜 읽는 것인가? 진지하게 한 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그 동안 풀어왔던 비문학 문제에서 첫 문단이 문제화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물론 관찰되지 않은 까마귀가 있을 수 있다는 귀납의 논리적 오류를 인정해서 나와 여러분이 보지 못한 문제 가운데는 첫 문단을 포인트로 출제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첫 문단은 문제의 출제 포인트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비문학 문제 풀이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많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시험에서 묻지도 않을 첫 문단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 좀 심하게 말하겠다.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골로 갈 수 있는 생각이다.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독해 한다는 것은 읽어야 할 부분과 읽지 않아도 될 부분을 나누어서 읽지 않아도 될 부분을 버림으로써 시간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 혹시 만약 비문학 지문을 설명하면서 "이 부분은 예시니까 의미가 없죠? 읽을 필요 없습니다. 예, 또 이 부분은 앞 문장의 부연이니까 읽을 필요가 없죠?"라고 설명하는 선생의 강의를 듣고 있다면 우리의 앞날은 안 봐도 뻔하다. 그런 선생들이 약장수다.

냉정히 생각해 보자. 그렇게 설명하는 선생의 설명을 들어도 매우 효과적으로 금방 지문에서 근거를 확인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만? 그 선생이 설명한 지문의 경우에만 그렇다. 그 선생은 이미 수업 전에 수업 준비를 한답시고 지문을 일독하고 문제까지 풀어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 지문에서 문제에 써 먹을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와 대면할 때

문제 풀기 전에 일독하고 분석할 시간이 주어지던가? 그렇지 않다.

말이 많아지니 숨이 차다. 그래도 말은 해야겠다.

수능 비문학 지문은 절대로 한 글자도, 한 문장도, 한 단락도 빼 놓아서는 안 된다.

5분 동안 3-4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험에서 지문의 경중을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단, 무조건 읽는다. 절대로 빼 놓지 않는다. 대신, 모든 문장을 동일한 비중으로 초견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체크가 필요하다. 그 부분이 바로

첫째, '다구리'의 원리에 따라 소화제 별로 나누어 가면서 세밀하게 확인한다.

둘째, 확인 과정에서 '개념', '비교, 대조', '조건, 인과, 변수', '과정', '인용(사람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확인한다.

이것이다. 잊지 말자. 시험장에서 성적은 기술이 아니라 원칙이 결정한다. 혹시 모르겠다. 한 3등급 정도만 받는다면 만족하겠다는 학생이 있다면 원칙을 버리고 기술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난 내 학생들에게 항상 100점을 목표로 제시한다. 함께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원칙을 잊지 말자. 기술은 개나 쥐 버리기 바란다.

말이 많아져서 좀 민망하다. 어서 ㉔ 문단으로 건너가 보자.

㉑ 문단에서는 '음악의 재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렇다면 아직 읽지 않았지만 이 화제에 대한 답변이 ㉒ 문단부터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나의 견해만 나온다면 단순하게 정리하기만 하면 되지만, 대립적인 관점이 여럿 나온다면 비교, 대조가 필요할 것이다.

팁을 하나 주자면, 보통 대립되는 견해가 주어질 때 학생들은 두 가지 견해의 차이에만 주목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에 출제될 때는 학생들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 대립되는 견해보다 대립 속에 숨겨진 공통된 견해를 묻는 문제가 더 자주 출제되고 이런 경우에 함정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본다. 아직 지문을 함께 독해하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글이 흘러갈지는 알 수 없으나 혹, 대립되는 견해가 나온다면 그 속에 숨겨진 공통된 견해가 없을지 주목하자.

㉒ 흔히 논의되는 회화적 재현의 핵심적 조건은 그림의 지각 경험과 그림에 재현된 대상을 실제로 지각할 때의 경험 사이에 닮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악이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은 음악 작품의 이른바 순수하게 음악적인 부분이 재현 대상에 대한 즉각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데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사과를 재현한 회화에서 재현된 대상인 사과는 작품의 제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림 속에서 인식이 가능한데, 음악의 경우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음악은 재현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바다를 재현했다고 하는 드뷔시의 '바다'의 경우라도, 표제적 제목을 참조하지 않는다면 감상자는 이 곡을 바다의 재현으로 듣지 못한다는 것이다.

회화적 재현의 핵심조건(지각 경험과 재현된 대상에 대한 지각의 닮음)을 설명하면서 '음악'은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현적일 수 없다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즉, 회화는 '제목' 없이 무엇에 대한 그림인지 바로 인식할 수 있음에 반해, 음악은 '제목'을 참조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재현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한다.

바로 다음 문장을 살펴 보자.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일반화되기 어렵다. 모래 해안의 일부를 극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한 그림은 재현적 회화이지만 그 제목을 모르면 비재현적으로 보이기 십상일 것이다.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의 경우, 제목을 알 때 감상자는 그림에 그려진 선과 칠해진 면을 뉴욕 거리를 내려다 본 평면도로 볼 수 있지만 제목을 모를 때는 추상화로 보게 될 것이다.

이 부분부터는 앞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앞 부분에서 회화는 제목 없이도 무엇을 재현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반면, 음악은 제목 없는 무엇에 대한 재현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음악에 재현적 성격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이 부분은 회화의 경우(극사실주의 그림, 몬드리안의 그림)도 제목이 없다면 무엇을 재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목' 없이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음악은 재현성이 없다'라는 ㉒ 문단의 주장은 잘못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㉓ 그러나 이에 대해, 회화적 재현에서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와 같은 사례는 비전형적인 반면 음악의 경우에는 이것이 전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다. 물론 음악에서는 제목에 대한 참조 없이도 명백히 재현으로 지각되는 사례, 예를 들어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의 새소리 같은 경우가 드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음악의 재현 가능성을 부정해야 할 이유가 될까? 작품에서 제목이 담당하는 역할을 고려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㉔ 문단은 ㉒ 문단 뒷 부분의 내용에 대한 재반박과 그것에 대한 재재반박으로 구성된 문장이다. 길지 않은 문장이나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자.

㉒ 문단에서 “회화도 제목이 없으면 뭘 그렸는지 모르는게 있으므로 제목 없이 무엇을 표현했는지 음악에서는 알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재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해 ㉓ 문단 첫 부분에서 ㉒ 문단의 뒷 부분의 견해에서 제시한 예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회화에서는 제목을 모른 채 작품을 보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매우 예외적인 반면 (비전형성), 음악은 이런 경우가 일반적 (전형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㉔ 문단의 뒷 부분의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

당신들의 주장처럼 제목이 없이 재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음악의 성격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점(제목 없이도 무엇을 표현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만 가지고는 음악의 재현성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술 작품에서 ‘제목’의 역할을 살펴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㉕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음악 작품의 가사는 물론 작품의 제목이나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표제까지도 작품의 일부로 본다. ㉔의 입장을 근거로 할 때, 작품의 내용이 제목의 도움 없이도 인식 가능해야만 재현이라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제목이 작품의 일부인 한 예술 작품의 재현성은 제목을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작품을 대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슈베르트의 ‘물레질하는 그레첸’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단순한 반주 음형은 제목과 더불어 감상될 때 물레의 반복적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들린다.

㉔ 문단의 뒷 부분에서 제기한 문제제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많은 학자들이 ‘제목’도 작품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보기 때문에, 제목을 배제한 채 인식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옳지 못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

㉖ 음악이 재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작품 이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 재현적 그림의 특징 중 하나는 재현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작품의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재현적이라 일컬어지는 음악 작품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㉔이들의 입장이다. 감상자는 작품이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 음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상자는 ‘바다’가 바다의 재현으로서 의도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도 이 곡을 이루는 음의 조합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곧 ‘바다’를 음악적으로 이해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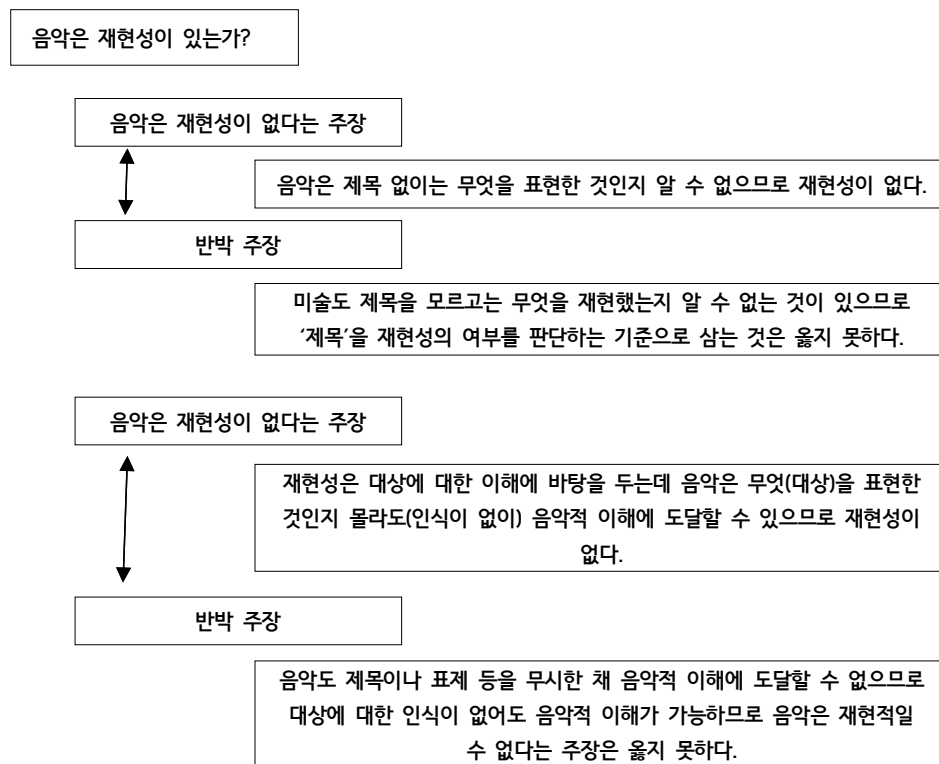
㉖ 문단은 ‘음악의 재현성’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의 문제 제기이다. ㉔ 문단까지는 ‘제목’ 없이는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음악은 재현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그런데 ㉖ 문단은 제목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음악의 재현성’에 대한 의심을 드러내고 있다.

재현적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재현된 대상에 대한 인식이 작품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어야 하는데 (사과가 뭔지 알고 있어야 사과를 그렸구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 음악은 ‘재현된 대상(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인식이 없어도 ‘음의 조합과 구조’를 통해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알 수 있으므로 음악은 재현적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㉔ 그러나 ㉓에 대한 반대의 입장도 제시될 수 있다. 작품의 제목이나 표제가 무시된 채 순수한 음악적 측면만이 고려된다면 작품의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표제적 제목과 주제를 알지 못하는 감상자는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에서 왜 '프랑스 국가'가 갑작스럽게 출현하는지,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의 말미에 왜 '단두대로의 행진'이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실로 이들 작품에서 그러한 요소들의 출현을 설명해 줄 순수하게 음악적인 근거란 없으며, 그것은 오직 음악이 재현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의해서만 해명될 수 있다.

㉒ 문단은 다시 이에 대한 반박이다. 음악도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다시 말해 '제목이나 표제에 대한 인식 없이'는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㉑ 문단에서 제시한 주장, '무엇을 표현한지 몰라도 구조와 음의 조합을 통해 음악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음악을 재현적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

별 것 아닌 글인데 사뭇 머리가 복잡하다.  
단순하게 글을 도식화 해 보자.



자, 그럼 이제 지문 분석은 끝났으니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자.

LEET 문제라고 해서 대단하게 있는 게 아니다. 지문과 사실적으로 대응하고, 추론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대로 머릿속으로 독립적인 추론을 할 것이 아니라, 지문에 근거를 둔 사실적인 추론을 해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자.

**[문제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바다’는 표제적 제목 없이는 재현으로 볼 수 없다.
- ②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제목과 함께 고려할 때 재현으로 볼 수 있다.
- ③ ‘전원 교향곡’에서 자연의 소리를 닮은 부분은 제목과 함께 고려해야만 재현으로 볼 수 있다.
- ④ ‘몰레질하는 그레첸’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반주 음형은 제목과 함께 고려할 때 재현으로 볼 수 있다.
- ⑤ ‘1812년 서곡’에 포함된 ‘프랑스 국가’는 순수하게 음악적인 관점에서는 그 등장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①번 선지는 ㉠ 문단의 “드뷔시의 ‘바다’의 경우라도, 표제적 제목을 참조하지 않는다면 감상자는 이 곡을 바다의 재현으로 듣지 못한다”에서 확인 가능하다.

②번 선지는 ㉡ 문단의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의 경우, 제목을 알 때 감상자는 그림에 그려진 선과 칠해진 면을 뉴욕 거리를 내려다 본 평면도로 볼 수 있지만 제목을 모를 때는 추상화로 보게 될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번 선지는 ㉢ 문단의 “음악에서는 **제목에 대한 참조 없이도 명백히 재현으로 지각되는 사례**, 예를 들어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의 새소리 같은 경우가 드문 것이 사실이다.” 부분을 참조하면 옳지 않은 진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번 선지는 ㉣ 문단의 “슈베르트의 ‘몰레질하는 그레첸’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단순한 반주 음형은 제목과 더불어 감상될 때 물레의 반복적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들린다.”에서 확인 가능하고

⑤번 선지는 ㉤ 문단의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에서 왜 ‘프랑스 국가’가 갑작스럽게 출현하는지.....요소들의 출현을 설명해 줄 순수하게 음악적인 근거란 없으며, 그것은 오직 음악이 재현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의해서만 해명될 수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능이든 LEET든, 근거 문단을 사실적으로 확인하는 연습이 처음과 끝이다.  
절대로 잊지 말자.

**[문제 2] 글쓴이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 ① 순수한 음악적 측면만으로 재현 대상에 대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악 작품이 흔히 존재한다.
- ② 음악의 재현 가능성을 옹호하려면 회화적 재현을 판단하는 기준을 대신할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③ 제목의 도움 없이는 재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음악과 전형적인 회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이다.
- ④ 음악적 재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음악 작품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감상자가 작품을 충분히 이해하는 경우가 전형적이어야 한다.
- ⑤ 재현에 대한 지각적 경험과 재현 대상에 대한 지각적 경험 사이에 닮음이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악 작품이 존재한다.

역시 객관적인 근거를 찾으면서 정오를 판단해 보자.

①번 선지는 ㉢ 문단의 “회화적 재현에서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와 같은 사례는 비전형적인 반면 음악의 경우



에는 이것이 전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다. 물론 음악에서는 제목에 대한 참조 없이도 명백히 재현으로 지각되는 사례, 예를 들어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의 새소리 같은 경우가 **드문 것이 사실이다.**"부분을 근거로 한다면 잘못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㉔번 선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위 글에서 작가가 '새로운 기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던가? 본적이 있다면 손가락으로 짚어 주기 바란다. 아마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㉔번 선지는 적어도 지문에서는 작가의 견해인지 알 수 없다.

㉕번 선지는 ㉓ 문단에서 근거를 찾아보자. 작가는 "회화적 재현에서 '브로드웨이 부기우기'와 같은 사례는 비전형적인 반면 음악의 경우에는 이것이 전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있다. 물론 음악에서는 제목에 대한 참조 없이도 명백히 재현으로 지각되는 사례, 예를 들어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의 새소리 같은 경우가 드문 것이 사실이다."에서 '제목의 도움 없이 재현 여부를 알기 어려운 장르는 음악'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회화와 음악의 공통점으로 제시했다는 견해는 옳지 않다.

㉖번 선지에서 음악의 재현 가능성의 기준으로 제시한 '작품의 충분한 이해에 대한 전형성'은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준이다. 그러므로 옳지 않다.

㉗번 선지는 ㉓ 문단에서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 제시한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의 새소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 3] <보기>에 대한 ㉑ - ㉓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보 기>

슈만은 멘델스존의 교향곡 '스코틀랜드'를 들으면서 멘델스존의 다른 교향곡 '이탈리아'를 듣고 있다고 착각한 적이 있었다. 이탈리아의 풍경을 떠올리며 '스코틀랜드'를 들었을 슈만은 아마도 듣고 있는 곡의 2악장의 주제에 왜 '파, 솔, 라, 도, 레'의 다섯 음만이 사용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멘델스존의 의도는 스코틀랜드 전통 음악의 5음 음계를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 ㉑ ㉑은 이것을 예술 작품의 일부로서 제목이 갖는 중요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㉒ ㉑은 슈만이 자신이 듣고 있는 곡의 재현 대상을 몰랐더라도 곡의 전체적인 조합만큼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㉓ ㉑은 5음 음계가 사용된 이유에 대한 정보가 그 곡이 교향곡으로서 지니는 순수한 음악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㉔ ㉑은 슈만이 자신이 듣고 있는 곡의 제목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 음악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할 것이다.
- ㉕ ㉑은 이탈리아 풍경과는 이질적인 5음 음계로 인해 슈만이 자신이 듣고 있는 곡의 음악적 구조 파악에 실패했다고 할 것이다.

우선 ㉑, ㉒, ㉓의 견해부터 정리한 후 문제에 접근해 보자.

㉑ : "음악 작품의 가사는 물론 작품의 제목이나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표제까지도 작품의 일부"로 보는 견해

㉒ : "감상자는 작품이 재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 음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

㉓ : "품의 제목이나 표제가 무시된 채 순수한 음악적 측면만이 고려된다면 작품의 완전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견해

<보기>는 슈만이 멘델스존의 교향곡을 들으면서 제목을 착각하는 바람에 멘델스존의 음악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㉑번 : '제목'에 대한 오해가 작품 전체에 대한 오해를 낳게 되었으므로 표제도 작품의 한 부분으로 보는 ㉑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견해이다.

㉒번 : 슈만은 멘델스존의 교향곡에 '스코틀랜드'를 재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음악에 사용된 '5음계'는 파악을 했으므로 ㉒번 선지는 ㉓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적절한 견해이다.

㉓번 : 슈만은 멘델스존이 왜 5음계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음악적 구조는 파악을 하고 들었음을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㉔번도 적절한 선지로 볼 수 있다.

㉕번 : '제목이나 표제를 알아야 완전한 작품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㉔의 견해에서는 슈만이 작품의 제목(표제)를 오해했기 때문에 작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㉖번 : ㉔은 표제에 대한 오해가 작품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방해했다고는 말 할 수 있으나 '음악적 구조(5음계)'는 슈만이 알고 있었음을 <보기>에서 밝히고 있으므로 '음악적 구조 파악'에 실패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정답]

---

- 1) ③
- 2) ⑤
- 3) ⑤
- 4) ⑤